



생명보험회사 연금상품 판매추이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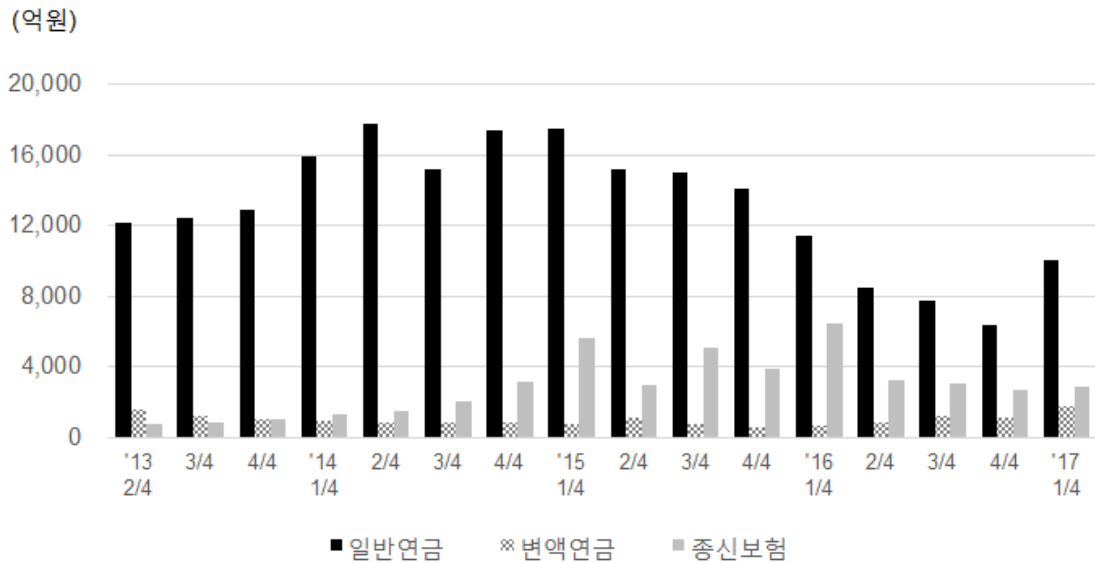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기대수명의 증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판매는 저금리 환경 지속, 회계제도 변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판매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연금시장 활성화는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의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상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의 증가로 개인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음

-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과 차별화된 연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함
- 그러나 세제비적격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초회보험료는 2014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4/4분기 초회보험료는 2014년 2/4분기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4분기 초회보험료는 전 분기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7년 4월부터 적용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따라 가입이 몰렸기 때문임

〈그림 1〉 연금상품 초회보험료 추이



■ 연금상품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환경 지속, 회계제도 변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판매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생명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시이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IFRS17 시행으로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일반연금상품 판매가 위축됨
- 한편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연금니즈가 발생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연금보험 가입수요를 흡수함
 - 연금보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기 시작한 2014 2/4분기 이후부터 종신보험 초회보험료가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 참조)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신상품으로 변액연금 판매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최근 신규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연금을 대체하기에는 규모면에서 큰 격차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수령 시 최저 수령액을 보장하거나 수수료 없이 납입원금을 보장하는 등 기존의 변액연금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일반계정 상품에 비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로 자본부담이 적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을 통해 판매를 강화할 유인이 있음

- 2017년 들어 주가지수가 상승추세를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변액연금 신규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변액연금 시장 규모가 일반연금의 1/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변액연금의 판매 확대로 전체 연금시장의 제도약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연금시장 활성화는 노후소득 부족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의 대응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신노후소득을 원하는 은퇴자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은 중요한 보완상품임
- 사망보장과 생존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과 같은 과도기적 상품보다는 생존보장에 집중한 연금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연금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는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상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상품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회계 및 감독제도 변경으로 연금상품 판매 시 자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 투자형 상품이 자본 부담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의 장점을 혼합한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가입자와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 고민이 필요함
 - 주가지수 상승기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연계형 일반연금, 연금수령액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는 최저 연금수령액 보장 변액보험 등을 들 수 있음
- 한편 파생상품이나 재보험을 통해 이자율리스크와 장수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자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kiri**